은밀한 상도 상일 수 있나?

(마6:1~18)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은밀한 상도 상일 수 있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 합니다.
은밀한 상도 상일 수 있나?' 질문입니다.
은밀한 게 무슨 상이 될 수가 있느냐는 질문이지요.
대답부터 말하자면, 은밀한 것은 상이 아닙니다.
상은, 은밀해서는 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1987년 1월 달부터 연예인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3년 동안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첫 날 가서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배 목사님을 따라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광고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광고시간에 제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도저히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광고의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도 탤런트로 활약하고 계시는 줄 아는데 탤런트 이영후 씨-그 당시 집사님이셨습니다-가 MBC 연기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가 주보에도 실려 있고 또 광고를 말씀해 주시는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그 내용을 언급하며 다같이 박수를 치고 축하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하 실감 나더라고요, 연예인 교회라는 게.
아니 어느 교회가 '아! 어느 집사님이 MBC 연기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 뒤로 연예인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연예인들도 레벨이 여러 층 아닙니까?
최고 스타들의 어떤 가정에도 가보고, 또 정말 그늘에서 아직도 무명으로 전전하며 어렵게 생활하시는 연예인들도 접해보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지방에 가게가 오픈 할 때에 그 오픈 개업식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고 지방에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떨 때는 지방의 특산물을 주기도하고 또 지방의 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는, 감사패를 받기도 하고, 뭐 공로상을 받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 분들의 의식 속에서 지방에 행사 뛰러 갔다가 받게 되는 그런 공로상이나 감사패, 이것과 연말시상식에서 받게 되는 연기대상은 비교해 보면 행사 갔다가 받게 되는 이런 감사패 따위는 이건 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주된 이유가 뭐냐? 그렇게 차별이 되게끔, 차별이 나게끔 하는 요소가 뭐냐?
바로 공개성의 크기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크게 공개적으로 받는 상이냐? 하는 것이 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올림픽의 금메달이 대단한 이유가 뭡니까?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메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4년 동안 지옥훈련을 감내해 내는 거라는 겁니다. 상의 크기가 그런 거예요.
시골학교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고 받는 개근상과 올림픽 금메달과는 차이가나는 것은, 어느 정도로 그 상이 은밀함에, 은밀하다는 게 뭡니까? 감추어 숨겨져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걸 말해요. 그 은밀함에 반비례하느냐에 따라서 상의 가치가 결정되는 겁니다.
서울 평화상이라는 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노벨 평화상과 서울 평화상 비교해 보세요, 뭐에 차이가 있습니까?
노벨 평화상은 지구전체가 다 떠들썩해요, 그러나 서울 평화상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셈이에요.
결국은 서울에서만 상을 주지 서울시민들도 서울 평화상을 잘 몰라요.
다 가려지고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아요.

그게 무슨 상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갚는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6장 1절에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외식을 경계하는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외식을 경계하시면서 그 경계하심을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상이라고 하는 매개물, 상이라고 하는 소재를 동원하셔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나오는 얘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갚으시리라, 상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해서 사람들에게서 상을 받으려 하지 말라.

하아! 여러분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오른편 뺨을 치면’ 너무너무 굴욕적인 처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왼편까지 갖다 대라’
이유 없이 이렇게 굴욕적인 처사를 대할 때에 왼편 갖다 대기 쉽지 않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상을 향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외식이고 위선자가 된다.’
맞지요, 그 말씀은 맞아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3대종교행위에요.
구제, 기도, 금식.
하나님을 의식하고 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고 가야 외식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니까, 그런데 왜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주시냐?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면서 은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받기 위한다는 게 마음에 동기부여가 됩니까?
안돼요, 안돼요.
5리를 가자 할 때 10리를 가는 게 편하지요, 속옷을 뺏을 때 겉옷까지 줘버리는 게 편하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이건 죽으라는 말이 차라리 더 편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는 게 있어요.
상은 절대로 은밀할 수 없습니다.
상의 가치와 상의 크기는 은밀함에 반비례 합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그 드러남의 경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게 상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지 못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대하여 지불할 마음이 없어지고, 마음이 다 모아진 상태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느끼고 천국에 담겨진 사람들이 어쩔 수없이 낼 수밖에 없는 천국 티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 티가 날 때 이렇게 난다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의 상을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제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현장을 얘기했어요, 오늘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자, 그 순교현장으로 가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계신 것을 보노라'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변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고 싶은 분노에 차서 스테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스테반이 소리치면서 난리를 치고 있는 그 하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은밀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스테반은 그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는 은밀한 하늘나라가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이보다 더 공개적으로 눈앞에 제시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이 그렇게 상을 받고 싶어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은밀하게 가려져있지마는, 스테반은 부들부들 떨면서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하늘나라가 공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스테반의 눈과 마음속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과 세상이 은밀하게 감추어져 버립니다.
마음에는 하늘이 공개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천국이 공개적이 되어 버리고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 이 지구에 사는 전체 사람들보다 더 공개적으로 내 눈앞에 노골적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MBC 연기대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지방행사 뛰러 갔다가 받은 공로상하고 이 입장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세상에서 주는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상이, 이게 행사 뛰러 갔다가 주는 공로상이 되어버리고 하늘나라가 MBC 연기대상의 자리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은밀한 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얘기는 네 주변의 사람들, 네가 이제까지 그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했는데 - 상이라는 게 뭐에요? 칭찬의 표시에요, 훌륭한 업적이 있다든지 아주 잘한 행위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칭찬해주는 표시가 상입니다 - 근데 사람들로부터 그런 칭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이 '네 마음에는 완전히 공개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외식이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내 앞에 내 마음에 드러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치 않고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행해야 될 행동들이 위선이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질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다 죽고, 그 마음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너무 노골적으로 네 앞에 공개되기 때문에 천국이 네 마음에 느껴지기를 너무 확연하게 노골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도저히 너는 그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상을 바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스테반 뿐만 아니에요.
베드로와 사도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 갑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예수를 전하지 말하고 말할 때에, 자! 사람들에게 칭찬 받도록 움직이는 마음을 갖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쳐야지요.
근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뭐냐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중 어느 게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는, 산헤드린 공회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것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 이 선민의 나라에서 최고 지도자급에 있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이 좋다고 여겨지는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천국이 은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요한, 이 사도요한은 자기 앞에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을 원해서 뛰지, 아무려면 저~ 지방의 행사장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회장님정도밖에 안 되는 산헤드린 공회가 주겠다고 MBC 연기대상을 포기하고 그리로 가겠느냐 이겁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내가 이제까지 상 받고 싶어 하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은밀하지만 내 마음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오는 상이 오히려 은밀하게 여겨질 정도로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떨 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앞으로 이루게 될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게 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외식함이 끝날 것이다.'
'왜 외식함이 끝나느냐? 너희 앞에 웅성웅성 대는 사람들보다도 더 공개적이고 더 노골적으로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에 느껴질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의 상을 바라면서 금식해도 금식하고, 기도에도 기도하고, 구제에도 구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천국 티가 이렇게 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제뿐만 아니라 주기도문 말씀을 하세요.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한다,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 한다는 게 뭐에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는데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뭔지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하나님에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돈이 필요한 것 알고, 밥이 필요한 것 아시고, 물이 필요하고 옷이 필요한 것 아십니다.
근데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달라 그래요, 이게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데 자꾸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얘기를 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어떻게 주기도문이 나와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 아버지를 어디에 가야 만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가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야 되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고 이게 바로 골방기도입니다.
이 골방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골방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개적이라서 이 공개적으로 눈앞에 나타나고 계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게 골방기도에요.
그래서 골방 주기도고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기도는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주기도문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마음이 하늘에 잠기거나 하늘을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은 주기도문 이외에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러므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내 상황에 적용시켜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으로 마음이 천국을 느끼는 사람만이 가능해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그래도 그렇게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아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천국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계속 못하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으로 느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기도의 티, 주기도문밖에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입을 게 없는데, 왜 하늘로 뛰어 올라가느냐?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보면, 그 노골적으로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걸 안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는 말씀이 세 번 반복됩니다.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여자들이 평생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프로포즈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일 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하는 사람일 때 그 사람에게서 받는 프로포즈는 상중에 최고의 상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이 칭찬의 표시라고 그랬어요, 어떤 칭찬입니까?
‘당신은 이 지구 전체를 통 털어서 나에게 가장 여자다운 여자요, 오직 당신만이 여자다’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일 때에, 내가 지긋지긋해 하는 사람이 와 가지고 ‘난 당신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혐오스러운 일이고 끔찍한 일이고 공포스러운 일이지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남자인데 프로포즈를 하면서 나한테 여자는 당신밖에 없으니까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이보다 더 큰 상은 없습니다.
왜 전율합니까? 이때 왜 흥분합니까? 이때 왜 떱니까? 왜 이때 감격하게 됩니까?

은밀한 시간이에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단 둘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포즈하는 반지도 남자의 형편이 어려울 때 정말 우스꽝스럽고 너무 지나치게 조야해 보이고 소박해 보일지 모르지

마는, 뭐 때로는 그저 구리로 된 반지하나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하게 클로버 꽃으로 만든 그런 반지,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흥분하고 떨립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지구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모은 것보다도 더 소중하니까.
그 소중한 남자가 내게 '당신만이 나한테 유일한 여자'라고 고백하는 이 순간, 이보다 더 큰 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친구도 몰라요 부모도 몰라요 연애하다 갑자기 이런 프로포즈를 받게 되면 아무도 몰라, 밤잠을 못 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왜 하나님께서 주는 상은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왜 프로포즈는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이 남자가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지구보다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1년 뒤에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이혼할지언정, 지금 프로포즈를 받는 이 순간만큼은 이 남자가 내 마음에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세상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그 남자의 프로포즈가 내게는 일생일대의 다시 올 수 없는 최고의 대상이라 이겁니다.
연기대상이 아니라 여자 대상, 프로포즈 여자 대상이에요 지구보다 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늘나라를 갖게 되면, 주님은 이걸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걸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천국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천국 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지구보다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상이라면 그 지구의 어떤 상이라도, 노벨상 템플턴상 이런 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상이 전율하면서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하만민이 다 반대하는 길을, 제자들까지도 만류하는 길을 오직 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상을 크게 바라고 십자가로 직행해 가시는 겁니다.

사도바울도 달려갈 길 다 가고 이후로 상을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초를 당했지마는 그 고초를 상으로 바꿀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받는 핍박을 사람들의 칭찬으로 바꾸려 하지 않고 직행했던 이유는 이 세상사람 다 모아놓아 봐도 그 크기가 비교도 안될 만큼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왜 주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으려 하고 있고 이러한 기독교의 믿음을 가지려 합니까?
그 동안 은밀하게 계시던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보이는 이 지구보다 더 공개적으로 더 노골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보여서 오직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계실 분인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공개적이라서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내 앞에 계셔서 그분으로부터 오는 상이 아니면,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상은 아무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까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밀한 상은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이 이 세상이 주는 상보다 더 크게 보이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더 노골적이고 더 공개적으로 확인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가능한 한 오래,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여러 번 붙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이렇게 크게 느끼는 자리까지 가는 과정으로서 오늘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